

34년 오직 한 길 빅토리 바디샵 벨플러워 플러튼 세리토스 롱비치 다우니 놀렉

LIFETIME WARRANTY! 최대 시설/ 최고 서비스/ 저렴한 가격



- ✓ 보험 수리 전문 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!)
- ✓ Lease Return
- ✓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- ✓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- ✓ Towing & Rent Car

(562)920-9745~6 17441 Clark Ave, Bellflower, CA 90706
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오픈특가 \$7.00/LB

aci store

한국택배/ 24H 메일박스 오픈 (부에나팍 사거리)

- *전세계 16개국 25직영점 NETWORK/ 항공-해운 물류서비스
- *전자상거래-배대지-3자물류대행-한국역직구대행-전세계택배
- *개인소화물-귀국이사-미국내 화물/이삿짐 운송-수입수출통관

T.714.735.9277 www.aciexpress.net
www.shippingtohome.com



갈갈 웃음

[절약 비법]

김 과장이 지갑을 꺼내 들었다. 지갑 속에는 아내 사진이 꽂혀 있었다. 그걸 본 이 부장.

“자네는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구먼. 지갑에 아내 사진이 있는 걸 보니까.”

“사랑하죠. 이 부장님은 지갑에 사모님 사진 없으세요?”

“나도 있지. 하지만 난 아내 사진을 보면 혈압이 올라서 말이야.”

“그런데 왜 사진을 갖고 다니세요?”

그러자 이 부장이 하는 말.

“그래야 쓸데없이 지갑을 안 열게 되거든. 이게 내 절약 비법이라네.”

[귀고리를 한 이유]

한 남자가 일하는 도중에 회사 남자 동료가 귀고리를 한 것을 보고 말했다.

“자네가 귀고리에 관심이 있는지 난 몰랐네.”

그러자 귀고리를 한 동료는

“별일 아닌 거 같고 괜한 말 만들지 말게. 귀고리일 뿐이야.” 라고 답했다.

그래도 남자는 궁금증이 가시지 않아 다시 물었다.

“언제부터 귀고리를 한 거야.”

그러자 동료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.

“와이프가 내 차에서 이 귀고리를 발견한 날부터……”

[부전자전]

수업시간에 학생 한 명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. 선생님이 화가 나서 학생에게 분필을 던졌는데, 옹케 학생의 뒤통수에 맞았다.

학생이 깜짝 놀라 부스스 일어나자, 선생이 학생에게 물었다.

“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지?”

학생이 대답했다.

“저는 안 죽였는데요.”

화가 난 선생님은 학부모를 모셔오도록 했다.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오자 선생님이 학생의 아버지에게 불평했다.

“아이의 수업태도가 너무 불량합니다. 수업시간에 잠이나 자고,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고 했더니 자기는 안 죽었다고 똥판지 같은 소리나 하고 말입니다.”

선생님의 불평을 들은 학생의 아버지가 말했다.

“집사람이 일찍 죽어서 그놈을 나 혼자 키우느라 가정교육을 잘 못 시켜 죄송합니다. 하지만 선생님! 그놈이 어려서부터 병원에 가기는 싫어했어도 의사를 죽일 그런 막돼먹은 놈은 아닙니다.”

[건배사]

비뇨기과 의사가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게 됐다. 그는 큰 소리로 ‘성행위!’ 하며 외쳤다. 의미인 즉 ‘성공과 행복을 위해서’ 였다.

하지만 분위기가 매우 썰렁했다.

그러자 그는 다시 건배사를 했다. 그가 ‘세우자!’ 라고 건배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‘뻗뻗하게!’ 라고 화답하며 분위기는 반전됐다.

건배사 ‘세우자!’ 는 이런 뜻이다.

세 : 게
우 : 아하게
자 : 신 있게

회식자리에서 누군가 건배사로 ‘세우자!’ 하면 남자들은 ‘뻗~뻗하게’ 라고 외치고, 여자들은 ‘오래오래’ 라고 외쳐 보자.

[유능한 일등 선장 사오정]

사오정은 매우 유능한 선장이었고 모든 선원들이 그를 아주 좋아했다.

그런데 선장은 아침에 자기 선실을 나설 때마다 금고에서 종이쪽지를 하나 꺼내 읽어 본 다음 그것을 다시 금고에 넣고는 하는 것이었다.

선원들은 누구나 그 종이쪽지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, 아니면 보물이, 아니면 흑시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닌지 몹시 알고 싶어 했다.

그런데 어느 날 선장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고 장례까지 치렀다. 그제야 선원들은 선장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금고 속에 있는 문제의 그 종이쪽지를 발견했다.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.

‘우현은 오른쪽, 좌현은 왼쪽’

타운뉴스 업소록

“리스팅 신청하세요!”

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

Phone: _____

주소명(한글): _____ 주소: _____

영문: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

업종: _____

-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
-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.



Tel 562.404.0027 Fax 562.404.0039
14311 Valley View Ave. #202, Santa Fe Springs, CA 90670

info@townnewsusa.com